

불펜 흑사 부르는 마운드 변칙운영 멈춰라

**KIA, 부상·부진 이유 투수들 보직 변동
그때그때 땀질 처방에 선수 투구관리 난항
김윤동, 지난 6일간 145구 던져 피로 누적
불펜 대란, 순위싸움 승부처서 패착 될 수도**

갑 갑 바뀐 KIA 타이거즈 앞길에 다시 또 마운드 고민이 쌓였다. KIA 김기태 감독은 부임 세 번째 시즌이었던 지난해 V11을 이루며 '우승 감독'의 타이틀을 차지했다. 우승의 영예는 누렸지만 고민 많은 마운드는 오점이자 숙제로 남았다. 특히 불펜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KIA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올 시즌 초반 마운드 분위기는 지난해와 달랐다. 부상과 부진이 겹친 선발진과 달리 경쟁의 바람이 불 불펜은 전력 상승으로 그나마 위안이 됐다. 윤석민이 마무리로 가세하면서 뒷문 불안도 해소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NC 다이노스와의 원정경기에서 KIA는 다시 또 마운드, 정확히 말하면 불펜 악몽에 빠졌다. 팻딘이 2-0으로 앞선 2회초 선두타자 안타에 이어 볼넷을 내주는 등 4실점을 하자 3회 빠르게 불펜이 가동됐다.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이민우가 3회를 실점 없이 막자 3회말 부상에서 복귀한 김주찬이 1타점 적시타를 만들었다. 그리고 KIA는 4회 타이거즈 외국인 역사상 첫 2년 연속 '20-20'을 알리는 버나디나의 스리런으로 6-4로 승부를 뒤집었다. 그러나 이민우가 4회 3피안타 1볼넷 2실점으로 동점을 허용한 뒤, 아웃카운트 2개를 남겨놓고 임기준으로 교체됐다. 부상·부진으로 자취를 감춘 심동섭을 대신해 올 시즌 좌완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는 임기준이 6회까지 2.2이닝을 소화했고, 6-6로 맞선 7회 필승조 김윤동이 투입됐다. 안타와 볼넷 하나씩을 내줬지만, 병살타와 삼진으로 실점 없이 첫 이닝을 막은 김윤동에게 길고 긴 8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윤동이 초구에 선두타자 박석민에게 안타를 허용했다. 도루에 이어 김성욱의 희생번트를 처리하던 김윤동의 실책까지 겹치면서 무사 1·3루. 1루수 땅볼과 삼진으로 투아웃까지는 채웠지만 좀처럼 주심이 손이 올라가지 않자, KIA는 1스트라이크 3볼에서 고의 사구를 선택했다. 하지만 연달아 밀어내기 볼넷이 나오면서 6-8로 역전이 됐다. 그사이 김윤동의 투구수는 51개까지 올라갔다. 2사 만루에서 뒤늦게 투수 교체가 이뤄졌지만 김세현이 2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이날 승부가 끝났다. 한 주의 시작부터 불펜 대란이 발생했다. 이어진 부진으로 팻딘의 자리 고민은 더해졌다. 필승조로 한 자리를 채웠던 임창용이 선발로 이동했고, 윤석민은 부상 복귀 첫해라 살얼음 기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마무리였던 김세현의 중용은 오히려 전력의 마이너스가 됐다. 김세현은 올 시즌 평균자책점 7.00, 1승 5패 4세이브에 그치고 있다. 세이브보다 많은 5개의 볼넷세이브도 남겼지만 여전히 많은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다 보니 김윤동의 어깨가 날로 무거워지고 있다. 지난 6, 7일 넥센전에 연달아 나왔던 김윤동은 하루 쉬고 9일 삼성전에서 2이닝을 소화하면서 46개의 공을 던졌다. 그리고 하루 쉬고 다시 등판해 무거운 짐을 지었다. 김윤동은 6일 동안 4경기에서 나와 무려 145개의 공을 던졌다. 앞서 이대진 투수 코치를 중심으로 한 '김기태호'는 젊은 선수들의 선발과 불펜 동시 투입 등 '변칙 운영'으로 팬들의 우려를 샀었다. 흥건희, 심동섭에 이어 올 시즌에는 한승혁이 선발 전날에도 불펜으로 이동하는 등 5차례 불펜 대기를 했다. 앞서 흥건희와 심동섭의 경우처럼 한승혁도 급격히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결정적인 순간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에도 계속되는 불펜 흑역사. 순위 싸움에 앞서 마운드 정상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7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신한은행 MY CAR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KIA 김윤동이 6회초 넥센 김하성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무사 만루가 되자 김기태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 불을 건네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류현진, 홈런 두방에 날아간 5승

신시내티전 5이닝 3실점 ... 두경기 연속 패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3패(4승)째를 당했다. 류현진은 12일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의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8안타를 맞고 3실점 했다. 삼진도 6개를 잡았지만, 홈런 두 방에 무너졌다. 다저스는 0-3으로 뒤진 5회말 타석에서 교체된 류현진은 팀이 1-3으로 지면서 패전의 멍에를 썼다. 지난 6일 뉴욕 메츠전(6이닝 10피안타 5실점 1자책)에 이어 두 경기 연속 패배다. 다저스는 올 시즌 신시내티와 6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졌다. 부상 복귀 후 처음으로 방문 경기에 등판한 류현진은 첫 위기를 잘 넘기며 의욕을 키웠다. 류현진은 1회말 1사 후 호세 페라사에게 좌익수 쪽 2루타를 맞았다. 후속타자 스쿠터 지넷을 볼넷으로 내보내 1사 1·2루에 몰렸지만 류현진은 에우헤니오 수아레스를 헛스윙 삼진 처리하고, 필립 어

빈을 2루수 뜬공으로 요리했다. 그러나 올 시즌 메이저리그 구장 중 홈런이 가장 많이 나온 '타자 친화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류현진의 편이 아니었다. 류현진은 0-0이던 2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브랜던 딕슨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맞았다. 3회 말에도 선두타자로 나선 스티브 세블러에게 우월 솔로포를 얻어맞았다. 류현진은 5회말에도 한 점을 내줬다. 선두타자 세블러의 빗맞은 타구가 투수 앞 내야 안타가 됐다. 류현진은 호세 페라사의 좌전 안타에 이어 지넷에게 좌중간에 떨어지는 1타점 적시타를 맞았다. 계속된 무사 1·3루에서 류현진은 에우헤니오 수아레스를 유격수 앞 병살타로 한숨을 돌리며 실점 없이 5회를 끝냈다. 다저스는 류현진이 마운드를 내려간 뒤인 6회초 좌측 피더슨의 솔로포로 한 점을 만회하는 데 그치면서 또 신시내티에 무릎 꿇었다. /연합뉴스



박성현, 세계 1위 굳히기

오늘 에비앙 챔피언십 출격... 2위 쥘타누간과 경쟁

여자골프 세계 랭킹 1, 2위 박성현과 에리아 쥘타누간(태국)이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385만 달러) 1, 2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벌인다. 13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479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올해 5개 메이저 가운데 마지막 대회다. 12일 발표된 이번 대회 조 편성을 보면 박성현은 쥘타누간, 조지아 홀(잉글랜드)과 함께 1, 2라운드를 치른다. 이들은 올해 앞서 열린 세 차례 메이저 대회 우승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박성현은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을 제패했고 쥘타누간은 US오픈, 홀은 브리티시오픈 정상에 오른 선수들이다. 이들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 7시 59분에 1번 홀을 출발한다. 박성현과 쥘타누간은 올해 나란히 메이저 1승을 포함해 3승을 달성,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메

이저 2승과 시즌 4승 고지에 선착할 수 있다. 박성현은 2016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했고, 지난해 대회에서도 1라운드 단독 선두에 나서는 등 최근 2년간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권을 뽐냈다. '골프 여제' 박인비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린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1박 2일' 연장 접전을 벌였던 페르닐라 린드베리(스웨덴)를 다시 만났다. 박인비는 린드베리, 유소연과 함께 13일 밤 8시 10분에 역시 1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한편 이번 대회 결과로 세계 랭킹 1위 변동 가능성이 있다. 박성현이 최근 4주 연속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2위 쥘타누간이 4위 이상의 성적을 내면 박성현의 결과에 따라 1위에 오를 수도 있다. 3, 4, 5위인 유소연, 박인비, 렉스 톰프슨(미국)도 이번 대회 성적에 따라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